HT건설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건축직

성장과정

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생각에 멀리 전남에 위치한 'OO대학교'라는 곳으로 학교를 진학하였습니다. 딱히 건축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건축공학 이라는 학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건축에 대하여 적지만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 학기중에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졸업 후 더욱 열심히 진전하여 1회 필기 합격 및 1회 실기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건축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내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단점

사람은 누구나 성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더욱 성실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성실함의 결정체인 '개근상'을 한번도 받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실히 학교를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제 손에는 '개근상'이라는 상패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성실하다고 하는건 또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결근의 기록이 없이 항시 만근을 하였고, 주위의 사람들 에게서 성실하다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 합니다. 그 단점은 얼굴의 표정에 생각이 나타난다는 점 입니다. 부당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나 저의 생각과는 다를 때 얼굴에 그 마음이 바로 들어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항상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하는 입장 입니다. 아직은 사회의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 주로 조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조원들의 화합과 아이디어 창출에 힘써서 조별 과제의 경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활동 및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여러 사람과의 소통 및 간접적인 사회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동기 및 포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면서 귀사의 문을 두들입니다. 아직은 특별한 현장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겠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 그렇기에 저는 이 처음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쌓기 위한 장소를 몰색 중 작지만 미래가 보이는 귀사를 선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장점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진전하는 모습으로 그 성실함을 증명 하겠습니다.